

재생이

군산 도시재생 소식지

 2월호
2022년



경암동 철길마을 조형물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4021 군산시 구영7길 129

T. 063. 442. 1166 ~ 7 E.mail. gscur@daum.net

재생 알림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조)

●위치



도시재생 小考

새로운 계획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송석기 센터장

겨울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디만 새로 맞이할 봄을 분주하게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짧은 2월로 인해 금세 다가올 3월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어수선히지는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 올 한해를 꼼꼼히 계획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중앙동과 해신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된 지도 여러 해가 지나 군산시도 이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구상해야 하는 때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지 거의 10년이 되었고 올해는 여러 중요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구상하는 단계에서 매번 어떤 사업 계획이 좋은 계획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사업 계획이란 뭔가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멋진 개념, 근사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좋은 계획은 우리 모습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분석과 내용이 먼저입니다. 누구나 감탄할 것 같은 신박한 해결책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만을 조금이라도 더 벗겨 내는 시간이 더욱 의미있습니다.



재생이



표지사진

철길마을 관평지에서 경포천 쪽으로 철로를 따라 걸어오면 철로에 귀를 대고 있는 소년을 만날 수 있다.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에서 소년은 경암동의 옛이야기를 듣고 싶은 걸까? 아니면 경암동 철길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까?

경암동은 지난 2년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작됐다. 주민들의 마을재생활동도 시작점에 있다. 붐뮐뮐처럼 사방에 돌아다니는 주민들의 활기를 소년은 듣게 될 것이다.



군산 도시재생 소식 2022. 01. 24~ 02. 21



2022. 01. 24. 월요일

패보선창번영회 주민회의
패보스토리 1899 1층



2022. 01. 27. 목요일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
소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02. 03. 목요일

집수리 사업 주민 면담
소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02. 07. 월요일

해신동 주민협의체 화장과 업무회의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02. 09. 수요일

경암동 주민역량강화교육
경암동 주민센터



2022. 02. 09. 수요일

신영시장상인회 월례회의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



2022. 02. 09. 수요일

해신동 뉴딜사업 관계자 업무회의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02. 14. 월요일

축제 기획사 대표(로컬프렌드리)와 주민협의
패보스토리 1899 1층



2022. 02. 15. 화요일

17 사업지 국토부 현장 방문
1층 수제맥주체험관 비어포트



2022. 02. 17. 목요일

광주시 중양동주민협의체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중양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



2022. 02. 17. 목요일

기초 및 현장센터 기초자료 조사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22. 02. 21. 월요일

우리동네 풍물패 만들기 도시재생대학
중양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뉴딜 중앙동

전라북도 최초 도시재생형 예비마을기업 째보선창협동조합 신규 마을기업 신청!!



21년 전북 최초 도시재생형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된 째보선창 협동조합은 1년동안 열심히 활동하여 째보선창 할매맥아박강정을 생산하고 판매하였으며, 여러 행사에도 째보선창 할매맥아박강정을 선 보였다. 22년 1월 신규마을기업을 신청하였고 군산시, 전라북도,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3회 대한민국 맥주 산업박람회

5월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3회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에 군산시 홍보 부스에 군산맥아로 수제 맥주 양조중 발생하는 부산물인 맥아박을 업사이클한 할매 맥아박강정을 선 보였다.

2021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에서 진행된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군산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성과물로 부스에 참석하였으며 째보스토리1899와 함께 2021 도시재생 사례공유발표대회 비즈니스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여하였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째보선창협동조합&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업무협약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구성된 주민공동체 째보선창변영회의 회원들로 구성된 째보선창 협동조합은 2021년 법인을 설립하고 전북최초 도시재생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2년 신규마을기업 운영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주민조직으로 나아가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하였다.



2021 전북사회적경제 박람회

11월 19일~2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GSCO에서 제1회 전북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렸으며 예비마을기업 째보선창협동조합 단독 부스로 참석하여 할매맥아박강정을 홍보하고 판매도 진행하였다.

째보선창협동조합은 2022년 신규마을기업 진입을 위해 1년 동안 꾸준히 준비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였다. 군산 시와 전라북도 심사를 지나 행안부 심사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어 최종 신규마을기업 선정을 기원해 본다.



문화자산 - **아는 만큼 사랑한다**

등록문화재 탐방(11) 군산 내항 호안시설과 철도

군산 내항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호안시설이 최초로 건설된 것은 1926년~1932년 사이에 진행된 군산항 축항공사를 통해서였다. 기존 해안선에서 최대 75m 폭의 해안을 메꾸는 대규모 매축공사를 통해 전체 823m 구간의 호안시설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새로 조성된 호안에서 도교를 통해 연결되는 뜬다리부두 3기 이외에 총 3기의 고정 잔교가 건설되었고 소규모 선박이 접안하기 위한 서로 다른 규모의 물양장 3기가 건설되었다.

매축공사를 위하여 군산 세관 서쪽의 수덕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채취된 돌과 흙을 이용하여 얇은 해안을 메꾸어 나갔다. 이에 따라 군산 세관 앞쪽에 조성되었던 개항 초기 군산항의 항만시설인 고정 잔교와 해안선은 사라지게 되었다.

매축공사 과정에서 지하에 하수관을 매설하여 매축지 내의 하수가 배출되도록 처리하였다. 특히 군산 내항의 원 지형에서 영화동 쪽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소하천이 있던 위치에는 대규모 콘크리트 하수관을 매설하여 원도심과 매축지의 하수가 모여져 배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수도설비를 설치하였다.

호안시설에서 뜬다리부두와 잔교가 연결되는 부분과 물양장이 조성되는 부분은 각 기능에 따라 별도로 바닥을 마감 처리하였고, 매축지 내에서의 도로는 석재로 포장하였다. 또한, 군산역에서 군산 내항을 따라 연장된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에서는 건널목과 철로 구간의 포장을 달리하였다. 군산 내항에 남아있는 호안시설과 철도는 1930년대 근대 토목기술의 내용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설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송석기 센터장〉



함께 알아가요!

퍼실리테이션에 관한 소견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백종화 팀장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은 라틴어 facilis에서 유래되어 쉽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중립적인 위치에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적을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행동을 말한다.

이 회의 방법은 1970년대 중반 미국 중심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9월부터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KFA)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국농어촌퍼실리테이터협회는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퍼실리테이션은 농촌현장포럼에서 주민들과 대표자원을 선정하여 마을 테마를 만들고, 마을 발전계획수립을 돕고 비전 체계도를 만드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기여하고 있고, 중심지 사업에서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용하고 있는 등 각종 상향식 사업과 주민 맞춤형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한 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도입하면 갈등 예방과 사업추진에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퍼실리테이터의 강력한 무기는 회의 시작할 때 회의 규칙을 참여자와 정하는 것과 어떤 참여자 한 분이 10분을 이야기해도 포스트잇 한 장에 요약하는 기록 능력이며, 무엇보다 참여자의 다른 생각을 함의로 이끌어 뒷담화를 없애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최근에 리빙랩이 유행하지만 현장 포럼과 그 패는 같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뉴딜 중앙동

평동 우편함 배달했어요, 목공으로 꿈꾸는 사람들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고덕자 팀원

재보선창 마을에 예쁜 우편함이 배달되었다.

2021 중앙동 하반기 주민공모사업 중 소규모 환경개선을 목표로 기획된 '내가 만든 우리 집 우편함'사업은 목공 수업 후 주민들에게 우편함을 전달하고 상인들에게 필요한 안내메뉴판을 제작 배포하여 오랜 기간 거주해 온 마을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상인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할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마을 40여 가구에 우편함을 설치하던 중 우편함을 대신해 구멍 뚫린 바구니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며 "평소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볼 때마다 안타까웠었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예쁜 우편함이 전달되니 답답했던 마음이 뽕 뚫리고 마을에 생기가 돋는 것 같다"라며 김성에 13통 통장은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소중히 우편함을 달아드리던 날에 매섭게 눈보라가 쳤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들여다보고 싶게 생긴 우편함은 지나던 주민과 우체부 아저씨의 관심을 끌었고,

날씨가 춥다며 따뜻하게 집으로 청해 차를 내주시던 토박이 주민의 친절함 등 이런저런 사연과 함께 소식을 담은 우편함이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동네를 화사하게 만들어 주는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목공사 유영주 대표는 말했다.

우편함조차 없던 벽에 이야기가 생기고, 옛날 소금 창고였던 해진 벽에는 깜짝 선물이 전달되며 골목길이 술렁거린다.

앞으로도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의 여러 이야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해 본다.



도시재생 이런 곳이!

군산 경암동 경마교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기은 팀장

경마장은 없는데 경암동 경포천에 경마교가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경마교 근처에 일제강점기 때 경마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 이름이 경마교라고. 경마장이 있었던 넓은 터에 농사를 지으며 집도 짓고 모여 살았다고 한다.

한국마사회 말박물관 '한국 경마의 역사' 등을 살펴보면 1920년대 군산 경암동에 사단법인 군산경마구락부가 설립되었고, 1942년에 한국마사회에 인수되었다. 군산의 경마는 처음에는 바닷가 공터에서 시작되다가 경암동에 경마장을 건설했고,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전략상의 이유로 부분 폭발, 해방 후에는 미군의 탄약 폭발 사고로 이어져 경마장 구실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다시 공터가 되었다. 그리고 6.25전쟁 이후인 1954년 농지로 분배되었다.



도시재생 이런 일이!

**“남 탓만 했다는 생각도 들고,
생각지도 않은 쪼그만 일로 큰 변화가 생겼어요!”**



해신상가변영회 이용섭 회장

그동안 우리 해신동하면 너무 지저분한 악취와 냄새가 시민들한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정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쓰레기 버리는 양이 어상자와 스티로폼은 별도로 5톤 트럭 한 차는 나왔다고 봐야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을 버리고 그래야 할 것인가! 그런 환경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변화를 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리고 치우면 뭣하냐! 다시 또 다음날 버리고 그런 것이 반복되고 하니까 그동안 몸에 밴 것이 안 고쳐졌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주민들, 상인들, 시민들이 다 같이 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좀 빠르는데, 일단은 몸으로 부딪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협의체 분들 열여섯 분 다 나오셨고, 우리 상인들이 열몇 분 나오시고, 주민들 나오시고 한 삼사십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생각지도 않은 나 혼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우리 똑같이 한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 협동심도 생기고 아! 우리가 이렇게 치우면 깨끗한 공간이 되는데, 그동안 남한테 계속 미루기만 하고 그런 것이 우리한테 생각지도 않은 쪼그만 일로 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나오는 양이 하루에 5톤 이상씩 되다 보니까 누적돼서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을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 실어 날랐어요. 쓰레기 차로 한 여섯 일곱 차, 사람이 실을 수 없는 상태여서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해서 그걸 떠서 날랐으니까,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7, 8년 방치됐던 대형 젓갈 통도 나오고, 뚜껑을 열었다 하면 냄새가 진동

할 정도고 오죽했으면 정화조 업체를 따로 불렀겠어요. 또, 나무 밑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심어놓고 전지를 한 번도 안 해서 악취가 진동해서 흠까지 전부 다 파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30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깨끗한 것은 처음으로 봤다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 사업이 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자부담이 10%예요. 백만 원은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업을 통해 이렇게 깨끗해진 것을 보고 백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해요.

큰 보람은 시민들이 그동안 해신동 찾아오시면 악취 난다! 아니면 우리 상인들이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먼저 반겨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해신동이 냄새 안 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사업을 끝내 놓고 다음 날 와서 보니까 쓰레기를 치우는데 관급봉투로 1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몸에 배어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4시부터 계속 돌면서 쓰레기봉투를 하루에 열 개씩 정도를 담아서 사람들 안 보이는 한쪽에다가 놓고 계속 치웠습니다. 하다 보니까 10개에서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한 달 이상 지나니까 한 개, 두 개 요즘에는 거의 하루에 한 개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제가 1차로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고, 저는 환경 쪽으로 지역을 넓혀서 더 해보고 싶고, 하다 보면 해신동이 다시 한 번씩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정화 전〉



〈환경정화 후〉



2022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광장 MARKET

드디어 3월 셋째주 토요일 시작합니다~
2022년 3월 19일

주최: 군산도시재생주민협의회 / 군산공예협동조합 / 문화기획평비재
문의: 063.442.8536 / 010.7549.7000



할매 맥아박강정

100% 수제 제작으로 군산 농산물 사용

현금 가능! 카드 가능!

NEW
할매맥아박강정
선물세트(4개입)
₩10,000
부가세 별도

전북 최초 도시재생광 예비 마을기업	공정 무역 마스코바도 사용	군산 보리 맥아박을 재생한 제품 제작	문의/주문 재보선창협동조합 070-4647-0229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으로 예비마을기업 선정. 태보선창 협동조합 설립	공정 무역으로 정식 수입원 마스코바도를 사용 가진 설탕의 단점을 보완	군산 보리 맥아로 수제곡주 제조 중 분성하는 부산물 맥아박을 재생하여 할매 맥아박 강정 탄생	신협 131-021-434917 택배 가능 카드결제 가능

재보선창 협동조합 정기총회

일시 22년 2월24일 16:00
장소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군산시 구시장로 70 2층)

내용 1. 21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 의안심의
1) 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신규마을기업 신청
2) 조합원 관리 규정 재정의 건
3) 기타안건
- 교육프로그램

- 발행일 2022년 2월 25일
- 발행인 송석기
- 발행처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기획·편집 김기은 · 정예슬

